

■ 연탄의 역사

1966년 석유에 밀려 하향기

1990년대 초 폐광시대 맞아

탄광매물 사건이나 연탄가스 중독사고는 1970~80년대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한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무료배달 소식 정도만 간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연탄전성시대는 갔다.

우리나라 연탄공장의 호시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인이 평양에 설치한 공장이다. 광복 후에는 대성산업이 연탄공장의 맹아(萌芽)였고 삼표·삼천리연탄 등 3대 메이저사가 1960년대를 대표했다. 이후 연탄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963년 말 전국의 연탄공장 수는 40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업체 간 과열경쟁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불과 2년 뒤인 1965년에는 3분의1 수준인 130여개로 공장 수가 줄었다.

정부는 1966년부터는 에너지 정책 중심을 석탄에서 석유로 옮기기 시작했다. 1969년에는 석유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4%를 차지해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연탄 소비량이 잠시 늘기도 했지만 내리막길을 걷는 연탄의 소비 감소 추세를 막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연탄의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1990년대 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시대를 맞았다. 현재 에너지 소비에서 연탄·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이다. 난방보다는 고깃집 등 음식점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탄재, 향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그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조선팔도 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둑바둑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연탄차라고. 불이 붙으면 그대로 재가 될 때까지 뜨겁게 더 뜨겁게 자신을 태우는 연탄. 세상을 알릴 듯했던 겨울 새벽 추위를 모두 몸으로 견딘 것처럼 연탄은 희색빛 재로 변해 버렸습니다. 연탄보일러가 데운 한 칸 방의 온기, 연탄불에 구운 노릇노릇한 고구마의 달콤함...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기만 한 연탄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탄재처럼 부서져 가는 기억의 마지막 끝을 일상인 양 잡고 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글·사진 안석기자 ccto@seoul.co.kr

서민들 아랫목 훈훈하게 데워줬는데

연탄 戀歌

하루 2000만장서 요즘엔 70만장만...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시흥동의 연탄공장입니다. 오늘 (21일)은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공장 너머 지하철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아침부터 트럭 행렬이 이어지면서 휴일인데도 평일보다 더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지금 25차리 대형 트럭을 타고 이단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와 제 친구들이 가는 곳이 부자 동네인 강남이라네요. 저 도 이제 '강남불' 좀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오시죠.

● 서울 시흥동 연탄공장 이야기

제 고향 '고명산업'은 서울에 2개뿐인 연탄공장 중 하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지요. 하루 연탄 생산량은 30만장 수준입니다.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려 100대가 넘는 차량이 운송일 눈코 뜰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직원들은 누가 오가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일만 합니다.

제 아버지(?)는 1978년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한 신회철 전 무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시작했던 1970~80년대만 해도 서울에 연탄공장이 무려 19개나 있었답니다. 그때는 서울의 하루 연탄 소비량이 2000만장이나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공장의 하루 연탄 생산량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60만~70만개 수준이었죠. 1970년대 석유파동 때는 하루 100만장까지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하루 연탄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말로는 70만장 정도에 불과하다네요.

이 공장은 1990년대만 해도 과거 삼천리연탄(현 삼천리E&E)의 시흥 공장이었습니다. 연탄산업이 사양길을 걷던 1997년, 본사가 시흥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아예 당시 직원들이 공장을 인수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답니다. 공장을 새로 열 당시만 해도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수는 한때 60명이 넘는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석유 대신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자 직원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 현재는 27명이 공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원 평균 연령이 60살이 넘는 정도로 평생 연탄과 함께 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새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모르는 말씀. 요즘 젊은이들은 연탄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올 들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무실에 석유난로 대신 연탄난로 놓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인기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부 아저씨들이 무연탄 공급 불균형 해소라는, 한번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쉽게 말해 공장에 지급하던 보조금도 줄이고 가격을 자율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1일부터는 연탄의 공장도 가격이 개당 403원에서 483원으로 올랐답니다. 시설비가 등에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여하튼 저는 이제 강남으로 갑니다. 트럭에서 잠깐 잠이나 자야겠네요.

● 거여동의 연탄 이야기

"47, 48, 49, 50... 아니다. 49개까지 옮겼지. 다시 합니다. 49, 50, 51..."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벌써 도착했다. 밖을 보니 20대 청년들과 10대 학생, 50대 아저씨가 함께 나란히 줄을 지어 연탄을 옮기고 있습니다. "연탄 200개를 옮기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일행을 재촉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언뜻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두 남자가 함께 연탄을 들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부자(父子) 사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린 친구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 부자 사이는 아니군요. 분명히 강남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강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연탄 특유의 냄새가 아

침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는 송파구 거여동. 서울에서 가장 연탄을 많이 태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한반도연탄나눔운동)'의 무료연탄배달 행사에 온 분들이라는군요. 범부법인 지평지성, 대학생 동아리 단체 '캐피터즈' 등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허허, 저렇게 연탄 나르면 안 되는데. 몇 명은 처음 연탄배달을 하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연탄 몇 번 나르다 보면 맘이 저절로 흐를 겁니다. 자,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저의 새로운 안식처는 홀로 사는 김용래(71)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단칸방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연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군요. 아마 5월까지 연탄을 써야 한다며 머릿속으로 연탄 수를 세고 계신 듯합니다.

김 할아버지를 비롯해 한 가구당 들어가는 연탄은 200~300장 수준입니다. 추울 때는 하루 3~4개, 날이 풀리면 1~2개의 연탄을 쓰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날이 조금이라도 풀릴 때에는 한 장이라도 아끼십니다. 그래야 봄 사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웃 주민인 안귀래(80) 할머니도 연탄을 쓰십니다. 안 할머니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연탄을 받지 못하신다고 한숨을 쉬시네요. "지난번에는 연탄 없는 집에 우리 집 연탄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집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안 할머니의 고운 마음에 저도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올해 한반도연탄나눔운동과 함께한 단체는 지난해 300여개에서 500여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도 3만 2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었다는 것이 원기훈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기업체 등의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봉사활동 참가자가 많아지니 그래도 힘이 되는 소식 아닙니까? 한반도연탄나눔운동은 봄·여름 사이 전국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실태조사를 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연탄 배달을 시작합니다. 원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리면, 연탄봉사활동은 '사회적 호도'입니다.

● 노원구 월계2동 연탄가게 이야기

아 참, 말이 나온 김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동네 연탄가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공장에서 직접 배달을 해 연탄가게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연탄을 살 일도 거의 없을 테구요.

제 친구 가운데 재개발이 예정된 노원구 월계2동의 연탄가게로 간 애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530원 정도에 팔리다니 저보다는 비싸게 팔리는 친구들이죠. 주인 김문국(53) 씨가 구멍가게와 연탄가게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김씨 연탄 창고에는 지금도 1000장 남짓한 연탄이 쌓여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장씩 나눠 갖는다고 계산하면 다섯 사람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제가 호황을 누리던 1960~70년대에는 하루에 수 백 장이 팔리는 것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짜증을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동네까지 배달을 나가다 보면 웬만한 공사판 노동일보다도 고됐기 때문이지요.

김씨가 연탄배달 나갈 일이 크게 즐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인근에 주공상계19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대의 연탄 판매량은 갈수록 급감했고 지금은 단골 폐고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김씨의 연탄가게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봄이 될 때까지 새 주인도 못 만나는 신세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는 이제 담담히 재가 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그래픽 김선영기자 ksy@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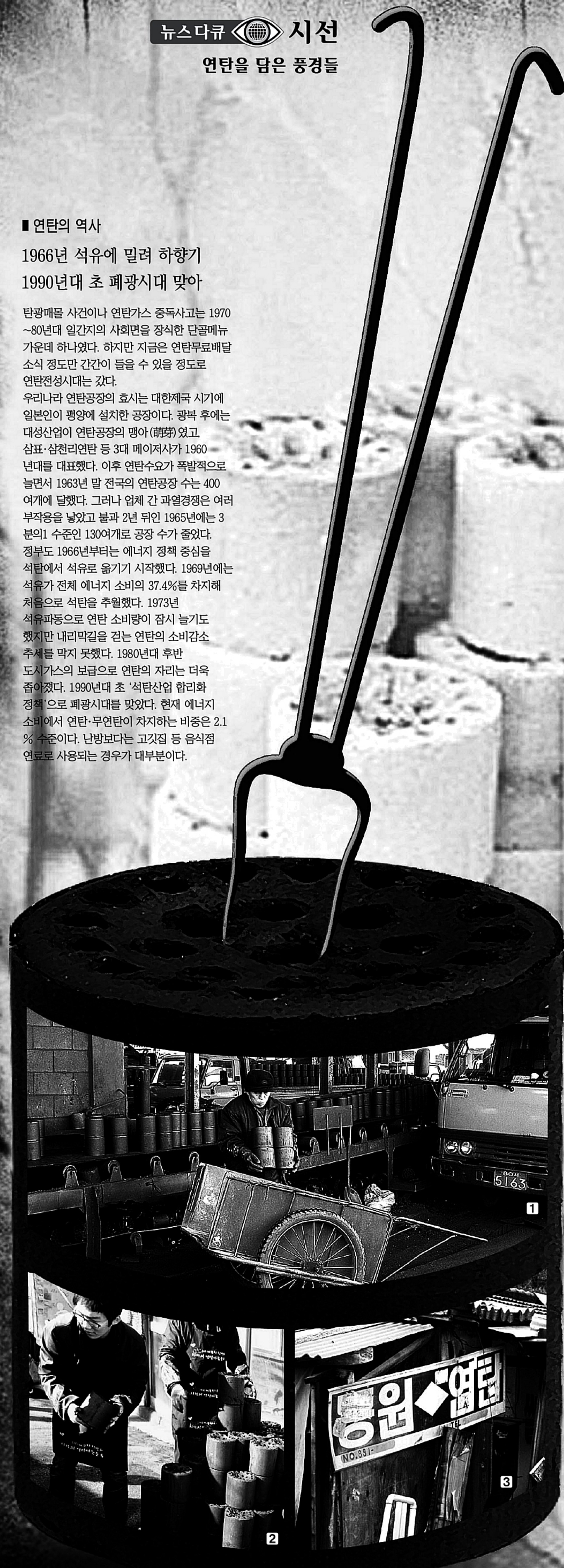
70년대엔 주문 많아 짜증도 나

이젠 단골째곤 손님이 없어요

.....

독거노인들에 따뜻한 겨울 선물

한반도연탄나눔운동 아시나요



1 서울시 시흥동 소재 연탄공장. 2 서울 거여동 주력가에서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에 무료연탄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서울시 월계2동 연탄가게의 모습.